

한국여성단체연합은

누구나 차별없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세상,
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폭력이 사라지는 평화로운 세상,
돌봄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
전국 6개 지부 27개 회원단체가 함께 활동합니다.

문의 : 한국여성단체연합
02-313-1632,
kwau@women21.or.kr,
www.women21.or.kr



150-03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-59 여성미래센터 501호
전화 : 02) 313-1632~3 / 팩스 : 02) 313-1649
www.women21.or.kr

여성사회권 지표-

일·생활양립과 지속고용을 위한 여성지표

사회권,
여성사회권,
여성사회권 지표

WOMEN'S
SOCIAL
RIGHTS



- 제작 : 한국여성단체연합
- 후원 :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

여성사회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

소득보장권

제1수준

- 성별 상대빈곤율
- 성별빈곤갭
- 성별 5분위 분배율
- 성별 공적연금 가입율
- 성별공적연금 수혜율
- 성별 공공부조 수혜율

제2수준

- 성별 장기빈곤율
- 성별 근로빈곤율
- 성별 고용보험 가입율
- 성별 산재보험 가입율
- 성별 국민연금 급여별 현황

제3수준

- 성별 근로형태별 빈곤율
- 성별 학력별 빈곤율
-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

제4수준(여성 소수자집단)

- 여성장애인가구 빈곤율
- 여성노인가구 빈곤율
- 다문화가정가구 빈곤율
- 여성 한부모가구 빈곤율

노동권

제1수준

- 성별 고용율
- 여성경력단절(25-34세 고용율) 정도
- 성별 한시적근로와 시간제 비중
- 성별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
- 성별 임금격차

제2수준

- 성별 청년층 실업율
- 성별 일용직 비율
- 성별 비정규직 비율
- 성별 노조 조직율
- 사회서비스직 성별 임금격차

제3수준

- 여성취업장애 요인에 대한 견해
- 직장내 성희롱 방지노력에 대한 만족도
- 직장에서의 성차별 인식
- 여성노동관련 법제도에 대한 견해
-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

제4수준(여성 소수자집단)

- 65세 이상 여성경제활동 참가율
- 여성장애인 취업률
- 이주여성경제활동 참가율
- 여성한부모가구주 경제활동 참가율

안·가족양립권

제1수준

- 공식보육시설에 등록된 아동비율
- 교사와 아동비율(0~3세)
- 교사자격의 국가인증
- 출산휴가 지원수준
- 육아휴가 지원수준

제2수준

-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
- 부모의 역할책임이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
- 출산휴가 적용범위
- 육아휴직 적용범위
-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분담정도

제3수준

- 최연소 아동 연령구분별 취업모의 자녀 양육 관련 애로사항
- 최연소 아동연령구분별 모의 미취업사유
- 출산과 양육위해 경제활동 중지 이유 및 유무

제4수준(여성 소수자집단)

- 여성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율
- 여성 독거노인들의 독거노인지원사업 이용율
- 이주여성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돌봄서비스 요구와 법적 지위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
- 여성 한부모 가구주의 모자보호시설 이용율

건강권

제1수준

- 출생시 건강수명
- 모성사망비
- 자가보고 건강수준
- 미충족의료율

제2수준

- 활동 제한율
- 저체중 유병률
-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
- 부부폭력 경험률
- 성폭력 경험률

제3수준

- 골관절염 유병률
- 당뇨 유병률
- 간접흡연율
- 스트레스 인지율

제4수준(여성 소수자집단)

- 여성 중증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
- 여성 독거노인들의 미충족 의료율
- 이주여성의 미충족 의료율
- 여성 한부모 가구주의 미충족 의료율

사회권? 여성사회권? 여성사회권 지표?

Q '사회권' 이 무엇인가요?

A 1948년에 제정된 유엔인권선언은 인권을 '인류사회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'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. 인권은 흔히 공민권(자유권, 참정권, 사회권으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으며, 그 중에서 사회권은 삶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. 그 사회에서 존재하는 인간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천부적으로 주어졌다는 천부인권사상이 바탕인 사회권은 인간으로서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준과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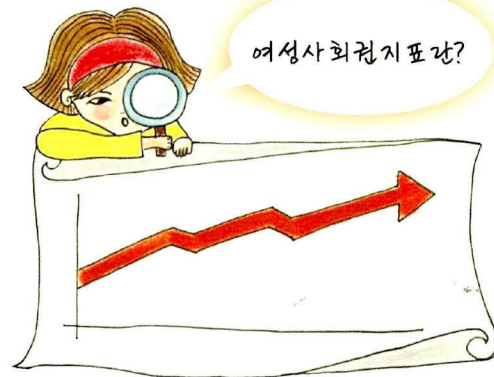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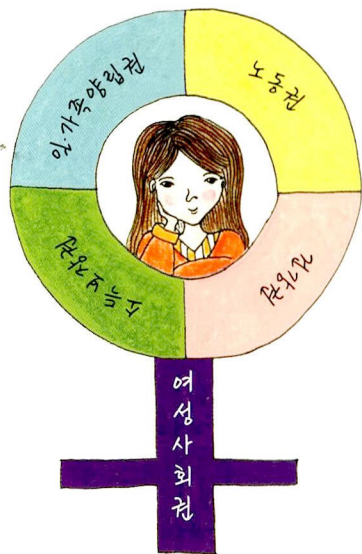
Q 왜 '여성사회권' 인가요?

A 사회권은 사회, 경제, 문화적 위기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. 주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그 내용과 권리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성은 시장영역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시장영역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져도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'여성사회권'은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짚어보기 위한 기준으로써 매우 중요합니다.

Q '여성사회권 지표'를 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A 여성의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국가기구나 관련 연구원 등에서 사회권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발표하고 있지만, 그 지표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그 원인을 알아보는 어렵습니다.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고,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정하고자 여성사회권 지표를 개발했습니다.





Q '여성사회권 지표'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?

A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(소득보장권), 일할 권리(노동권), 일과 가족생활을 함께 할 권리(일·가족 양립권), 건강에 대한 권리(건강권)로 구분하여 구성했고, 각 권리 영역별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(제1수준), 한국 여성의 특정한 지위와 실태를 알 수 있는 지표(제2수준),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(제3수준), 여성한 부모가구주, 여성노인, 여성장애인 등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여성 소수자 집단(제4수준)으로 구성했습니다.

Q 지표를 사용하면, 그 결과는 어떤 의미인가요?

A 예를 들어서, 소득권 영역의 제1수준 지표인 '성별 공적연금 가입율'을 계산하면, 전체 가입자 중 38.7%만이 여성입니다(2009 기준).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율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여성이 평균 수명인 80세까지 살아가면서 남성들보다 노후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. 노동권 영역의 제2수준 지표인 '성별 비정규직 비율'을 살펴보면, 여성은 44.1%인 반면, 남성은 28.2%입니다. 남성대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조건이 불안하고, 차별대우를 감수한다는 뜻입니다. 매년 이러한 지표 결과를 통해서 여성 사회권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Q 개발된 '여성사회권 지표'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?

A 매년 7월초 여성주간에 전국 여성사회권 및 지역별 여성사회권 현황을 발표하면서 변화추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. 또한, 정부가 생산하는 통계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도록 요구하고, 사회복지정책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 없이 추진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.

Q 매년 국제사회가 여성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발표하는데, 그것과 '여성사회권 지표'는 어떻게 다른가요?

A 유엔개발기구나 경제개발기구 등에서 남녀평등지수, 여성권한척도, 성별격차지수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, 그 지수들은 국가별 비교가 쉬운 것에 비해서 개별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사회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지도 않습니다. 반면, '여성사회권지표'는 제1수준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했고, 제2수준에서 한국사회 여성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여성사회권 전반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한국사회 여성의 사회권 현실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도록 개발했습니다.

